

# 박홍근 청문회 ‘무난 통과’ 전망... 쟁점은 추경·재정개혁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 약 25조 규모 추경안 주요 사안 “답다운 예산제도·지출 구조조정 고유가에 에너지 절감 등 검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큰 의혹 제기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무난한 통과’를 예상했던만큼, 청문회에서도 서울시장 경선 참여 이력이나 선거공보물 표기 논란 정도가 제기됐다. 오히려 청문회의 주요 이슈는 25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었다.

국회는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오전부터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는 박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인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아, 도덕성 검증 공방이 아닌 추경 편성 등 정책 검증에 집중됐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어렵게 되살아난 경기회복 흐름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기획예산처의 역할과 관련해 “기획예산처가 나라의 공간지기를 넘어 대전환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설계자이자, 국가 대도약을 이끄는 컨트롤 타워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여야를 넘어 국회와 정부를 잇는 견고한 기교로서 첨예한 이해관계를 하나로 묶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해 기획예산처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은 민생부담 및 양극화 완화,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등을 위해 재

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도 “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다”라고 했다.

이어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답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면서 “세입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노력과 함께 중앙과 지방 재정 전반의 비효율을 점검해 의무·재량 지출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문회에서도 추경·예산 편성 등에 질의가 집중됐다. 박 후보자는 추경 재원 질의에 대해선 “이미 당정 협의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국제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추경 설계 방향에 대해 “정부 추경안은 중동 상황을 감안해 원가 손실을 보전하는 방침으로 세밀하게 설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경에서 고유가 대응과 관련해 에너지 절감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예측되지 않는 유가 상황을 감안해서 국내의 수요를 최소화시키는 것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이 가급적 승용차나 기름 수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관련해서도 뭔가 추경을 통해서 지원책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국회 예산 심사 구조의 ‘깜깜이’ 관행과 형식적 운영을 지적하며 편성 단계부터 심사까지 전 과정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깜깜이’ 상태”라며 “심사 과정에

서도 국회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대규모 감액은 결국 정부 협조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산부터 국가재정운용 전략회의, 편성지침 수립, 부처 수요 수립, 국회 심사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편성 절차 전반을 재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국회가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역할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편 야권에선 박 후보자가 민주화 운동 당시 받은 형사처벌을 선거공보물에 ‘사면’이라고 잘못 기재한 데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법률적으로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제 불찰인 것은 맞다”면서 “선거권이 회복돼 모든 게 정리됐다는 뜻으로 쓴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과정 중 장관 지명을 받아 ‘청와대가 서울시장 후보를 정리한 것 아니냐’는 야당 측 지적에는 “정치보다 나라와 국민, 정부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결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 당정청, ‘전쟁 추경’ 내달 10일까지 처리

### 고유가 대응·취약 계층 지원 초점 법인세 등서 발생한 초과세수 활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25조원 규

모의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처리하기로 했다. 여당은 정부 추경안을 내달 10일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에 ‘속도전’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22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전쟁 추경을 25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과 취약 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재원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에서 발생한 초과세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실물 및 민생부분과 관련해 전쟁 추경을 신속 편성해 물류·유류비 경감, 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직접·차등지원 통해 취약 계층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에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르면 이번 주 추경안을 발표하고 내주 국회 제출, 내달 10일에 처리할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월 2~3일(추경관련) 상임위원회를 열고, 4월6일쯤 종합정책질의 이후 10일에(추경안을) 처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추경안 편성 및 국회 제출·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통상 한두 달 정도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추경이 25조원 규모로 예상되면서, 당초 전망(15조~20조원)보다 상당히 큰 액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5조원으로 규모가 확정될 경우,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실시된 18차례의 추경 중 2022년 5월(52조4000억원)과 2021년 7월(31조8000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수준이 된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물가 상승과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어, 적기에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서예진 기자

달 정도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추경이 25조원 규모로 예상되면서, 당초 전망(15조~20조원)보다 상당히 큰 액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5조원으로 규모가 확정될 경우,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실시된 18차례의 추경 중 2022년 5월(52조4000억원)과 2021년 7월(31조8000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수준이 된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물가 상승과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어, 적기에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서예진 기자

[ 방화동 247-7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공고 제2026-03-02호 ]

### 방화동 247-7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분양신청 연장 공고

“민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방화동 247-7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신청을 아래와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로 통지되는 분양신청 연장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한 조합원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아 래 -

1. 사업의 종류·명칭 및 사업 시행구역의 위치·면적  
1) 사업의 종류: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방화동 247-7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3) 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247-71번지 일원 4) 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9,816.70㎡
2. 건축심의 내용(시행령 제 24조 제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1) 건축물의 주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지하 3층 ~ 지상 14층) 2) 대지면적: 8,452.10㎡(실사용 면적)  
3) 건축면적: 2,856.4079㎡ 4) 건축연면적: 34,210.3897㎡ 5) 건폐율: 33.80% 6) 용적률: 232.61%  
7) 높이에 관한 계획: 지하 3층 ~ 지상 14층 8) 건축선에 관한 계획: 도로 2M, 인접대지 3M 이격  
9) 공동이용시설: 1,943.0874㎡
3. 분양신청 연장 기간: 2026년 03월 25일(수) ~ 2026년 03월 31일(화)까지(7일간) / 10:00 ~ 17:00
4. 분양신청 장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598-7, 2층 (방화동로 69-1, 2층)
5.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임대주택 제외)

| 구분   | 유형  | 세대수     | 전용면적       | 주거공용      | 공급면적            | 비고      |         |
|------|-----|---------|------------|-----------|-----------------|---------|---------|
| 공동주택 | 40  | 5       | 40.53㎡     | 16.48㎡    | 57.01㎡          | 17.25평형 |         |
|      | 49  | 20      | 49.60㎡     | 20.53㎡    | 70.13㎡          | 21.21평형 |         |
|      | 54  | 12      | 54.66㎡     | 21.97㎡    | 76.63㎡          | 23.18평형 |         |
|      | 59  | 45      | 59.87㎡     | 23.99㎡    | 83.86㎡          | 25.37평형 |         |
|      | 74  | 36      | 75.00㎡     | 29.23㎡    | 104.23㎡         | 31.53평형 |         |
|      | 84  | 53      | 84.87㎡     | 32.58㎡    | 117.45㎡         | 35.53평형 |         |
|      | 102 | 8       | 102.08㎡    | 39.29㎡    | 141.37㎡         | 42.76평형 |         |
|      | 합계  | 179세대   | 12,559.30㎡ | 4,929.82㎡ | 17,489.12㎡      | -       |         |
|      | 근린  | 유형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주차장 포함) | 계약면적    | 비고      |
|      |     | 지상 1층   | 147.35㎡    | 21.97㎡    | 198.73㎡         | 368.05㎡ | 111.34평 |
| 합계   |     | 147.35㎡ | 21.97㎡     | 198.73㎡   | 368.05㎡         | 111.34평 |         |

※ 상기 내역은 건축심의(반영) 기준이며, 향후 관리처분 및 인허가(변경포함)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분양신청 자격: “민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조합정관 제9조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
7. 분양신청 방법: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조합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함. 단, 우편의 경우 분양신청 기간 내에 발송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우편에 한함.
8. 토지 등 소유자 외 권리자의 권리 신고 방법: 토지 등 소유자 외 권리자는 그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양신청 기간 내에 조합에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함. 단,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발송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우편에 한함.
9.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지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민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처리함.
10. 이주 및 철거 예정일: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철거 및 이주 기간에 결정되며 이주 시기가 확정되면 별도 통보함. ※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분양신청인사를 첨부하여 개별 통지할 것이며 미 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서 통지를 갈음함.

[ 2026년 3월 24일 ]  
방화동 247-7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 정 석 (직인 생략)

## 李 “자주국방이 통합방위 핵심” 강조

###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안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 방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를 위한 통합방위의 본질은 국가의 모든 방위 역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국가 방위 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통합방위 태세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다.

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국가공동체 자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는 ‘안보’라고 불린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국가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우리 공직자 모두

## 국힘 서울·대구 경선 컷오프 후보들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책무”라고 규정했다.

이어 “오늘날 국제 안보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지고 있다.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 위기, 재난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국민의 통합방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방”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6·3 지방선거 서울 시장과 대구시장 경선 대진표를 확정했다. 하지만 공천 배제(컷오프)로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사들이 반발하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시장 경선 대상자를 총 6명의 후보자 중 오세훈 서울시장, 박수민 의원(강남을),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 등 3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이상규 서울성북을 당협위원장, 김충환 전 강동구청장, 이승현 인콰코리아대표 등 3명은 컷오프됐다.

앞서 공관위는 전날 대구시장 공천에 접수한 예비후보 9명 중 6선 현역 주호영 국회 부의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한구 전 달성군 새마을협의회 감사를 컷오프했다.

하지만 ‘기습 컷오프’에 주호영 부의장과 이진숙 전 위원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예진 기자